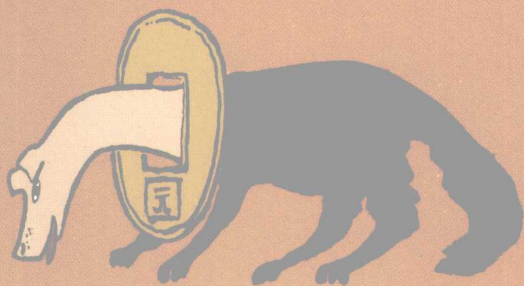


털 없는 개

리
중
훈

연변인민출판사



털 없는 개

리종훈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无毛之狗: 朝鲜文 / 李宗勋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6

ISBN 978-7-5449-0348-6

I. 无… II. 李… III. 戏剧文学-剧本-作品综合集-中国
-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30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90218号

无毛之狗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1 字数: 287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48-6 (民文)

版次: 2008年6月第1版

2008年6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작가의 말

내가 어릴 때 천당이라고 바라봤던 문학이요 예술이요 하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모지름을 써온지도 어언간 수십년, 인젠 인생의 막바라지에 오르고보니 지나온 나의 인생사가 어찌 보면 더덕더덕 기워서 만든 하나의 도포자락 같기도 하다.

실로 이만큼 살고보니 인생이란 결코 아름다운것이 아님을 진정 깨닫게 된다. 오히려 온통 상처투성인 얼룩진 인생이라 함이 옳음직하다.

숨을 가지고 인간세상에 나온 이상 살겠노라고 버둥거리며 뜯기우고 활이우고 당하기도 하고 꼬집혀보기도 하고 이름 날려도 보고 하다가 한줌의 재가루로 된 종당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인물이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인재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영웅이였다.”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데 나는 대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나로서도 가늠키 어렵다.

소년시절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냘픈 어머니와 함께 삽과 팽이로 논도 일궈보고 과부아들이라고 업신여김도 받아보고 기백이 넘쳐야 하는 총각시절엔 “조선특무”가 되여 “조롱속에 갇힌 새”로 소오쭈똥냄새에 눈물이 질끔 나오는 우사칸에서 “도”를 닦아보기도 하고 재가루를 머리에 폭 쓰고 눈만 판들판들 내놓고



긴 쇠장대놀음을 하는 오지공장에서 재꾸개질도 해보고 또 이러면서도 손에 권 필을 놓지 않음과 동시에 “탄파라”(이전 사람들이 일컫는 풍각쟁이의 총칭)도 즐기치게 해보고...

“공든 탑이 무너지랴”고 서른다섯살 중년에야 문화예술계통에 발을 담그게 된 나, 바로 이때로부터 배우질도 해보고 문예보도일군질도 해보고 전직창작원질도 해보며 전전공공 써낸 일부 무대작품들을 늦게나마 오늘 이렇게 추려서 명태드림마냥 한데 묶어내놓기는 한다마는 명작품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상싶다. 하지만 이것들이 곱든밋든 걸작이든 졸작이든 모두가 내가 낳은 새끼라고 생각하니 다 이쁘기만 하다.

오늘 이 작품집출판의 기회를 빌어 나의 창작에 이모저모 도움과 지도를 주셨던 선생님들과 문우들에게 진정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싶고 또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원심을 써주신 정도분들과 신고를 아끼지 않은 연변인민출판사 편집선생님들께 깊은 사의를 드리는바이다.

2007년 12월 27일

리 종 훈



2 털 없는 개

차 례

작가의 말	—	1
털 없는 개 (장막풍자회극)	—	1
홍도야 올지 말라 (대형가극)	—	73
별거벗은 신선 (장막풍자회극)	—	123
다시는...	(단막극)	— 194
그녀가 온 날 (단막극)	—	204
우박이 내린 뒤 (단막가극)	—	218
“바보”나그네 (단막극)	—	246
며느리 몸푼 날 (단막극)	—	265
“아버지한테서 배웠어” (단막극)	—	278
자식패풍 (단막극)	—	289
개울물소리 (방송극)	—	299
세월이 남긴 여운 (방송극)	—	323



털 없는 개

—박선석의 동명소설을 각색
(김웅걸과 합작)

때: 현재.

곳: 시교농촌.

나오는 사람들

김성구: 텃석부리, 59세

곽로친: 성구의 처, 57세

김미화: 성구의 딸, 28세

김덕수: 성구의 아들, 26세

정영팔: 약장사, 60세

정진수: 영팔의 아들, 31세

똥보과부: 58세

막이 열리면 간막앞, 집중광이 밝아지며 음악 “각설이타령”이 흐른다.

△ 정영팔 관중석으로부터 뽕과리를 치며 등장.

영 팔: 약 사시오! 약 사시오! 세상에 희귀한 “101재생령”명약을



사시오! 어제 이 마을에 전염병이라도 돌지 않는가? 짐승이구 사람이구 숨 가진건 골두 안 내미는가? (뽕과리를 세차게 쳐대며) 약 사시오!

△ 개짓는 소리.

영 팔: 옳지. 인제야 숨 가진게 나오기 시작하는군. 약 사시오! 털이 나는 명약 “101재생령”이요! 뽕들이마에 바르면 인츰 무성한 털발이 되고 코밑에 바르면 팔자수염, 궁둥이에 바르면 볼기작수염, 배꼽에 바르면 따발수염이 나는 “101재생령”입니다. 자, 남녀평등이라 여성들도 슬쩍 턱 밑에다 발라보시오. 인츰 량반수염이 나오는 “101”, 털이 나는 명약입니다. 자— (뽕과리를 친다.)

△ 개짓는 소리, 돼지, 닭 울음소리...

영 팔: 허참, (관중을 향해) 개는 많은데 내 쓰자는 털 없는 개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지개, 위리위리, 꼬독꼬독... (개를 부르며 퇴장.)

곽 씨: (무대 한켠으로부터 나오며) 오늘은 무슨 짐승이 왔길래 온 동네 개들이 이 야단인가?

△ 덕수 얼근히 취하여 등장.

덕 수: 엄마! 그새 옥채무강하셨습니까? (어머니를 안고 한고패 돈다.)

곽 씨: 에구야, 아니 이 녀석아, 넌 근 열흘째 간다온다는 소리 두 없이 어디 갔다 인제야 오니. 응? 네 사람질을 못하네라, 사람질을 못해.

덕 수: 어찌겠습니까? 타고난 팔자, 소똥밑에 깔린 인생이라 생기는대로 먹구 그러다 돈푼이나 생기면 술이나 마시구 이러다 늙으면 영생불멸. 아멘...

곽 씨: 듣기 싫다. 날래 들어가 누워라.

덕 수: 추상 같은 호령이라 이 아들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홍얼



거리며 나간다.)

팍 씨: 네 사람질을 못하네라, 사람질을 못해. 아니, 돼지굴을 손질하라니깐 우전국에 가서 무슨 털 뽑는 약을 찾아가지구 인차 오겠다면 령감은 어찌 안 오는가? 또 상점에 걸쳤단테. 에구에구, 사람질을 못합네. 에구! 저 돼지 굴을 마스구 또 나오네. 두— 두두... 저 돼지 사람질을 못합네. 두— 두두... (급히 퇴장.)

△ 미화 나온다. 막중간을 향해 노크한다.

미 화: 위생소! 신문, 신문입니다!

진 수: (간막안에서) 예예. 나갑니다. (간막을 헤치고 급히 나오다 문턱에 걸린듯 넘어진다. 안경이 떨어진다. 안경을 찾는다는것이 미화의 다리를 만진다.) 눈, 내 눈이 어디 갔는가?

미 화: 왜 이래요, 저리 비켜요!

진 수: 내 안경, 안경이 어디 있습니까?

미 화: (안경을 쥐여준다.) 자, 안경 받아요.

△ 진수 안경을 끼고 신문과 미화 얼굴을 번갈아보다가 신문을 쥔다는것이 또 미화의 손을 쥔다.

미 화: 아이, 이 손 좀 놓아요.

진 수: 아, 실례했습니다. (신문을 보며 간막안으로 들어간다.)

미 화: 참 한심한 근시안인데. (퇴장.)

△ 똥보로친 나온다.

똥 보: 야, 골목마다 다 비슷한게 모르겠다. 이 집 같은데... (중간막을 헤집고 기웃거린다.)

△ 온 얼굴이 털투성이인 성구가 얼근하게 취해서 나타난다. 그러면서 똥보뒤에 와서 살핀다.

△ 막안에서 개짖는 소리. 그 바람에 똥보 와들 놀란다.

똥 보: 에구, 저 더필개를...



△성구 똥보로친의 뒤굴에 면상을 얻어맞는다.

성 구: 아가가! 이게 뉘집 각시요? 엉?

똥 보: 예구, 이거 미안하꾸마.

성 구: 난 각신가 했더니 오래 묵은 녀자구만! 허참, 눈앞이 반
썩하더니 술이 다 켜다.

똥 보: 이거 정말 안됐습꾸마! 난 뒤에 사람이 있는걸 모르구...

성 구: 생김새는 떡호박 같아두 꽤나 캄썩하게 논다.

똥 보: 뭐 떡호박 같다구? 예구 뜨물속에 꺼꾸로 엎디여 들여다
볶소. 딱 마치 꺼꾸로 털어세워놓은 털걸레 같은게.

성 구: 뭐, 털걸레? 야, 이게 술이 다 켜다. (팔을 거두고 싸울태
세다.)

△ 서로 알똥말똥 면목이 있다.

성 구: 저 박푸강집 아주머니 아님둥?

똥 보: 예, 웁습꾸마.

성 구: 아주머니, 내 미나리골 세호동네에 있던 성구요.

똥 보: (성구 손을 덥석 잡으며) 이게 정말 성구 웁구나! 아이,
세호동네 리몽롱이라 불리우던 성구가 어찌문 이런 한심
한 덥석부리 됐소?

성 구: 세월이 못하는노릇이 있소. 하하... 그나저나 어떻게 돼서
오늘 이렇게...

똥 보: 내 전번 장날에 장마당에서 집의 미화 에미를 만났는데
미화 신랑감을 말하더라이. 요즈음 비슷한 자리가 나져
서...

성 구: 오, 그래서 우정 오셨소? 내 그 계집애를 시집보냈으면 앓
던 이를 뺨것만치 시원하겠소. 28살 먹도록 시집은 못 가
구 입은 잔뜩 여물어 썩하면 리상이 어찌구 저찌구 하지
만 녀자들이란게 무슨 특별한 리상이 따로 있소. 일찌감
치 시집이나 가서 돼지고기 흰살이구 강냉이국수구 막 건



어떡구 젓이나 잘 내서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 그게 1등
리상이지 판게 있소? 지금 아이들은 이런 도리도 모르니
참 답답하지...

똥 보: 호호... 가만 보니 딸에게 잘 물리워대는 모양이우. 양?

성 구: 어찌겠소. 아주머니, 꼭 힘을 써서 미화일만은 성사시켜
주오.

똥 보: 양, 내 후에 기별하겠으니 날래 들어가 그 수염이나 싹
깎구 사위 절을 받을 차비나 하오. 사위가 텃석부리가시
애비를 봤으면 기절해 달아나겠소!

성 구: (약병을 꺼내들고) 근심마오. 이 약을 보오.

똥 보: 그게 무슨 약이요?

성 구: 이게 “탈모상”이라는 고급약인데 이 약만 바르면 털이란
털은 몽땅 빠진다고. 그래서 내 우편으루 하북성에다 주
문했더니 오늘 이렇게 덜러덩 오지 않았겠소.

똥 보: 야- 세상에 별 약이 다 있다. 그럼 날래 그 텃석부리를
싹 검질하오. (깔깔 웃어대며 나간다.)

성 구: 그래 정말 가겠소? 점심에 불기쌈이나 잡숫구 가지? 잘
가오. 예잇, 내 당장 수염이구 머리구 몽땅 튀를 해야지,
빡이다. 빡! (퇴장.)

△ 경쾌한 음악—

△ 간막이 열린다.

제 1 장

△ 성구 집안에 엮디여 “탈모상”을 바르고있다. 온 얼굴에 거
품천지다.



△ 꺾씨 뒤울안에서 나온다.

꺾 씨: 모두 사람질을 못합네. 이 집엔 남자 둘씩 있다는게 돼지
굴은 이 마누라손이 안 가면 안되는게... (집안을 들여다
보며) 당신은 거기 었디여 뭘 함둥?

성 구: 가만있소. 거의 몽글몽글해지오.

꺾 씨: 그 약이 무슨 말을 듣는다구. 예구, 사람질을 못합네. (뒤
울안으로 들어간다.)

△ 성구 머리를 한줌 뽑아쥐고 환성을 올린다.

성 구: 여보! 여보! 빠지오!

△ 꺾씨 웃통을 벗고 세수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급히 나온다.

꺾 씨: 정말임둥?

성 구: (뽑은 머리를 보이며) 이거 보오. 하하...

꺾 씨: 호호... 그럼 같이 뽑깁소.

△ 음악 높아진다.

△ 꺾씨 경대를 온돌복판에 가져다놓는다. 비닐쫂박을 펴느라
야단이다.

△ 성구, 꺾씨 웃고 떠들며 머리와 수염을 뽑는다.

꺾 씨: 아이, 잘두 빠지네. 었다, 또 한줌이다.

성 구: 었다, 또 한줌이다. 물물 물러나지?

꺾 씨: 예, 돼지튀를 하기보다 더 수월하꾸마. 었다, 또 한줌이
다.

성 구: 아가가, 거긴 채 퍼지지 않은데요. 가족이 일어난다이.

꺾 씨: 호호. 그럼 이쪽켠으루 해서 었다, 또 한줌이다.

성 구: 었다, 나두 한줌이다!

꺾 씨: 었다, 나두 한줌이다!

성 구: 었다, 나두 한줌이다!

꺾 씨: 됐습꾸마, 말쑥하게 됐습꾸마.

성 구: 그렇소?



△ 광씨 수건으로 성구 얼굴과 머리를 닦아주며

광 씨: 장판닦기보다 더 쉽습꾸마. 거울을 봅소!

성 구: (거울을 들여다보며) 하하... 텃석부리 김성구가 이렇게 됐는가? 야, 니 김성구 옳냐? 옳다구? 이눔아, 니 이제 보니 왕신강이 왔다 울고 가겠다. 김성구동지, 한번 웃어 보시우! 그렇지. (광씨에게) 로친 보기에는 어떻소? 정신 이 나지?

광 씨: 호호... 정신이 날라구 중대가리 같은게 으쓱하꾸마.

성 구: 이제부터는 찢어버리지 않길래 로친도 해방이 됐소.

광 씨: 예. 올가을부터는 콩종자를 구울렸으면 좋겠습꾸마.

△ 성구와 광씨 웃으며 서로 룡담을 한다. 미화 자전거를 밀고 들어오는데 그뒤로 덕수 따라온다.

덕 수: 누애, 누애, 그게 요즈음 신문이요?

미 화: 넌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신문에 대해 그리 열성적이나?

덕 수: 글쎄 요새 신문에 개한테서 구보를 채집한다는 돈벌이소식이 났다오.

미 화: (신문을 몽땅 덕수에게 주며) 였다. 너절로 찾아봐라. 어머니!

광 씨: 벌써 점심팬가?

△ 성구 광씨에게 뭐라고 수군거린다. 그리고 벽에 걸린 저고리를 벗겨입고는 점잖게 돌아앉는다.

미 화: (집안으로 들어오다 돌아앉아있는 중대가리 성구를 보며) 아니 저분은 누구예요? 야, 덕수— (덕수를 부른다.)

덕 수: (집안을 보며) 중님이구만!

광 씨: 음, 저... 서울에 계신다던 너네 15촌 말아바이다.

미 화: 예?...

덕 수: (신문을 뺑개치고 썩— 성구곁으로 가며) 야— 말아바이! (굽석 절을 한다.)



성 구: (돌아앉은대로) 네가 덜렁수캐 덕수란 말이지?

덕 수: 예, 저 만아바이, 어떻게 비행기표...

성 구: 제 애비도 몰라보는 덜렁수캐 같은 자식이 무슨 비행기표
야. 똥수레표도 아깝다.

덕수, 미화: 예?

곽 씨: 호호...

덕수, 미화: ...(찬찬히 살핀다.)

성 구: (픽 돌아앉으면서 덕수 꼴을 탁 치며) 에이, 이 머저리야!
△ 일등 웃어댄다.

덕 수: 야, 기적입니다. 난 아버지의 얼굴은 털무지라고만 알았는데 그 털속에 이렇게 멸썩한 사람꼴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밖입니다. 하하...

곽 씨: 이 말버릇을 보지. 너 사람질을 못하네라.

성 구: 촌아이가들이 그렇지 뭐. 그 입에서 문장이 나오려니 하오?

미 화: 어마나! 아버지를 보세요. 어째 한쪽 눈섭까지 없어졌어요?

일 동: 엉?! (성구를 본다.)

△ 성구 거울앞에 가서 들여다본다.

성 구: 야, 고게 맹랑하다. 한쪽 눈섭이 없으니 한물이 떨어지는
구나!

곽 씨: 일없습꾸마. 다 늙은게 무슨. 꼬리 떨어진 소두 그저 그
렁습더꾸마.

성 구: 애들앞에서 말을 잘한다. 그래 내 꼬리없는 손가?

미 화: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가 눈섭을 그려드립니다.
다.

성 구: 건어치워라. 이거 술한거 웃기겠다!

곽씨, 덕수: 그려봅소.

△ 모두들 성구를 붙잡고 미화 눈섭을 그린다.

곽 씨: (성구 얼굴을 보며) 예구, 양겉춤을 추는 사람 같은게 입



전하꾸마.

성 구: 야아, 꿈만 하다. 내 이제 장가가겠소?

△ 일동 웃는다. 꺾씨, 미화 나간다.

△ 덕수 신문을 주어들고 온다.

덕 수: 아버지, 요새 신문에 돈별이정보 좋은게 났답더꾸마.

성 구: 무슨 정보?

덕 수: 개한테서 구보를 채집한다는겁니다.

성 구: 뭐, 구보? (신문을 와락 빼앗아 본다.) 엉? 여기구나!

덕 수: 아버지, 내 보집소! (신문 한끝을 쥔다.)

성 구: 임마, 내 본 다음에 봐라.

덕 수: 내 먼저 보집소.

성 구: 이거 못 놓게?

덕 수: 못 놓겠습꾸마.

성 구: 이눔아, 하나, 둘...

덕 수: 참자, 참는게 어른이라는데...

성 구: 이눔새끼, 하나 탁!...

△ 미화 방에서 나온다.

미 화: 야, 너는 안된다. 또 무슨 얼렁뚱땅수를 쓰자구.

덕 수: 누애는 시집이나 갈게지 채수없이 내 쉬를 날군다.

미 화: 니 뭐라니?

덕 수: 야야야— (덜렁 드러누워 흥얼거린다.)

꺾 씨: 애, 미화야, 점심 안 먹구 가냐?

미 화: 출근시간이 됐어요.

꺾 씨: 예구, 그럼 어찌겠냐?

△ 미화 퇴장.

△ 성구 골똘히 신문을 본다.

성 구: (큰소리로) 됐다! 됐다! 벌게 됐다!

꺾 씨: 뭐라구 췌슴둥?



성 구: 로친, 우황이란걸 알지?

곽 씨: 예, 그 소열속에 땅땅한게 있다는게 아님둥?

성 구: 양!

곽 씨: 그게 그리 비싸다면서?

성 구: 옳소, 개열에두 돌맹이같이 땅땅한 구보라는게 있다 했소. 그게 옛날말루 하면 개구사라는게라이.

곽 씨: 옳습꾸마, 나두 개구사란 말을 들었는데 정말 있는 모양이꾸마. 예?

성 구: 있다마다, 한근에 2만원이라오!

곽 씨: 저런! 2만원? 그런데 그런 개를 어떻게 찾슴둥?

덕 수: 가만. (신문을 읽는다.) “속에 구보가 있는 개는 거개가 털이 빠져서 알몸통이나 다름없으며 눈알은 빨강고 체온이 높으며 먹이를 먹기 싫어하고 물만 마신다. 그리고 체질이 약하여 대가리를 푹 떨구고 늘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서 안절부절 못한다.”

성 구: 야, 복잡하게두 생각한다. “개구사있는 개는 털이 없다, 털 없는 개는 개구사가 있다.” 이럼 필이지. 젠장!

덕 수: 옳습꾸마, “털 없는 개는 구보가 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꾸마.

성 구: 그런데 그런 개를 어디 가면 얻어본다?

곽 씨: (무릎을 탁 치며) 옳지! 내 정말 털 없는 개를 봤습꾸마.

성구, 덕수: 영? 어디서?

곽 씨: 가만있습소. 그 개 당나귀만큼 큰것 같던데.

성 구: 양? (격동돼서) 예구야, 나는 어찌개!

덕 수: 아버지도 그렇슴둥? 나두 가슴이 막 떨리는게 별났습꾸마! 아버지, 돈을 줍소. 내 당장 떠나겠습꾸마.

성 구: 옳다. 여보, 어디서 봤소? 빨리 말하오! 저놈아를 당장 보내야겠다이.



곽 씨: 오, 옳지! 큰오라버니네 집에서 봤습꾸마.

성 구: 큰처남네 집에서? 당신이 요새 언제 처남네 집에 갔다왔소?

곽 씨: 요사인게 아니라 내 시집오던 해이니깐 이젠 37년전이겠습꾸마.

성 구: 이 로친이 들랑날랑하지 않소?

곽 씨: 내 말은 확실히 털 없는 개라는게 있다는게꾸마.

성 구: 확실하지 않으면 신문에 내겠는가?

덕 수: 내게 방법이 있습꾸마.

성 구: 또 무슨 엉터리수냐?

덕 수: 내 자전거를 타구 전 중국을 일주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털 없는 개를 못 사겠습니까? 돈만 줍소!

곽 씨: 옳다. 상해나 광주 같은 큰 시내에는 고양이빨도 다 있는데 그런델 가면 못 사겠니?

성 구: 이렇게 세상물정 모르구야!

덕 수: 큰 시내에서는 근본상 개를 못 치게 하꾸마.

성 구: 그렇지 않구. 심산두메산골 으숙한 세호동네라든가 혹은 “가”자 뒤다리도 모르는 문맹촌으로 다녀야만이 털 없는 개를 면회할수 있다는것!

덕 수: 옳습꾸마, 아버지 정말 골이 좋습니다.

성 구: 둘째로는 유치원, 소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탕 몇알씩 나누어주면서 정보를 수집할것!

덕 수: 야, 아버지 확실히 골이 좋습니다.

곽 씨: 에이구, 애비 아들이 부르구 쓰구 잘한다. 그래서 전번에도 하마(기름개구리)장사를 하면 돈마대에 깔려죽는다면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천원돈을 밀지고 나았습슴둥?

덕 수: 야, 엄마두, 그게 “혁명” 이란게꾸마.

성 구: 니 말이 옳다. 한번 넘어졌다고 코를 풀쩍거리며 울게 아

